

영화 유령 박소담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비서 유리코 역

“갑상선암 극복하고 왔어요”

배우 박소담의 목소리는 또렷 또렷했다. 불과 한 해 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서 수술대에 올랐던 사람으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표정이 밝았다.

영화 ‘유령’ 홍보차 16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박소담은 “새로운 에너지를 많이 받는 요즘,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오랜 시간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고 환하게 웃었다.

박소담은 2021년 당시 암투병 때를 떠올리며 “목소리 신경을 잃을 뻔했다”고 털어냈다. 그러면서 “약 10개의 흑을 떼어냈고,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았다. 오늘 영화 ‘유령’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박소담은 오는 18일 개봉하는 작품 ‘유령’에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비서인 ‘유리코’ 역을 맡았다. 화려한 색감의 옷으로 치장하고, 어디에서도 주목 받지 않는 당돌한 모습을 선보이며 매력을 발산한다.

극 중 박력 넘치는 액션 연기는 그간 알아 왔던 박소담, 영화 ‘기생충’의 ‘기정’을 잊게 만든다.

그는 작전 출연작 ‘특송’에서도 액션을 선보였지만, ‘유령’에서는 그보다 한층 진화한, 잘 훈련된 명품 액션 연기를 선사한다.

“인물이 가진 감정을 극대화해서 한 번에 보여

일제 항일조직 ‘흑색단’ 이야기
암 진단 전까지 작업했던 영화
혹 10개 떼어내 목소리 잃을뻔
인터뷰 할 수 있다는 것 큰 행복

줄 수 있는 것, 캐릭터가 가진 상황과 감정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짧은 순간에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게 ‘액션 연기’ 같아요. 체력이 되는 한 액션 연기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박소담은 작품에서 ‘차경’역으로 분한 선배 배우 이화니와 함께 장충을 들고서 뛰고, 구르는 독한 연기를 선보인다.

그는 선배 이화니를 두고 “함께 연기를 하며 많이 의존했고, 나이 차이가 크지 않지만 마치 엄마같이 느껴졌을 정도로 존재감이 컸다”고 당시를 돌아봤다.

“저의 모든 걸 쫓겨주셨던 하니 선배, 최근에는 갑상선(갑상샘)에 좋은 오일 만들어서 주시고 항상 아낌없이 주시는 선배예요. 함께 했던 것만으로도 기쁠 수 있는 존재이자, 엄마같은 존재, 모든

것을 관리해준 분입니다.”

작품 ‘유령’은 그가 암진단을 받기 전 가까스로 작업을 마친 영화다. 박소담은 이후 수술을 하고 회복과정에 들어가며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집중했지만 아직은 작품 촬영을 위해 카메라 앞에 다시 서지는 못했다.

그는 새로운 작품을 만나는 것을 고대하듯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겨울 34일간 유럽 여행을 홀로 다녀오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혼자 있으면 공허해지고, 외롭고 우울해질 거 같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저 자신을 ‘비워내는 작업’이었다고 할까요.”

박소담은 요즘 ‘행복해 보인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했다. ‘유령’의 VIP 시사회에는 한참 선배인 신규, 이순재 배우가 참석해 큰 힘을 받기도 했다고 좋아했다.

“오는 설연휴 나흘 내내 무대인사를 다니며 관객분들을 만날 생각이예요. 새로운 관객을 만나면 떨리기도 하지만 그때 그 감정은 말로 표현이 잘 안 돼요. 그 감동만으로 ‘배우하기를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합니다.” /연합뉴스

‘박재범표 음악 토크쇼’ 기대하세요

‘유희열의 스케치북’ 후속
KBS2 ‘더 시즌즈’ 진행



노영심, 이문세, 이소라, 윤도현, 이하나, 유희열 그리고 박재범.

30년간 방송된 KBS 심야 음악 토크쇼의 명맥을 이을 신규 음악 토크쇼 ‘더 시즌즈’의 첫 시즌 진행자로 래퍼 박재범이 나선다.

박재범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더 시즌즈-박재범의 드라이브’ (이하 ‘박재범의 드라이브’) 제작발표회에서 “제 이름 걸고 하는 건 다 신중하게 생각한다”며 “30년 전통을 이을 수 있게 돼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 이름은 박재범이 2016년 발표한 곡명 ‘드라이브(DRIVE)’에서 직접 착안했다. 이 노래는 “모든 걱정과 고민을 잊을 수 있도록 함께 떠나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박재범은 “(이 프로그램도) 편안하게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음악을 듣고, 사랑을 나누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제껏 주로 차분하고 잔잔한 스타일의 진행자를 고수해온 KBS가 자유분방한 매력을 뽐내는 박재범을 선택한 건 여러모로 의외의 선택이라는 평을 받는다.

지난 11일 진행된 첫 녹화에서 박재범은 특유의 틀에 박히지 않는 입담과 진행을 선보였다는 후문이다.

이창수PD는 “첫 녹화 당시에 박재범 씨가 대본을 전혀 따르지 않아서 눈앞이 캄캄해졌었다”고 털어냈다.

그러면서도 “끝나고 나선 섭외하길 질했다고 생각했다”며 “그는 조금 더 새롭고 요즘 시대에 맞는 진행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프로그램을 시즌제로 진행한다는 점도 새로운 변화다. ‘더 시즌즈’는 한 해 동안 시즌 네 개를 선보이며, 시즌별로 다른 MC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행을 맡는다. 박재범 뒤를 이을 MC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PD는 “노영심, 이소라, 윤도현, 유희열 등은 보편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개별성에 의미를 뒀다”고 차별점을 짚었다.

그동안 KBS의 심야 음악 프로그램은 원로 가수부터 싱어송라이터, 래퍼, 인디뮤지션, 아이돌 등을 초대해 다채로운 무대를 꾸며왔다.

대부분의 출연진이 라이브로 무대를 소화하기 때문에 가창력에 자신 있는 신인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는 얼굴을 알릴 최고의 기회로 여겨져 왔다.

‘유희열의 스케치북’만 해도 지난 13년 동안 신인 뮤지션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아이유가 ‘유희열의 스케치북’ 10회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연합뉴스

‘슬램덩크’ 2주만에 100만 관객

아바타 이어 박스오피스 2위

1990년대 인기 만화 ‘슬램덩크’를 스크린에 옮긴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개봉 2주만인 17일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배급사 NEW에 따르면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이날 오후 2시 40분 기준 누적 관객수 100만65명을 기록했다. 이 작품은 새해 들어 100만 관객을 넘어서 첫 영화가 됐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현재 ‘아바타: 물의 길’

에 이어 박스오피스 2위를 지키고 있다.

배급사 측은 “입소문을 타고 개봉 2주차 평일과 주말에도 첫 주를 넘어서는 관객수 증가 추이를 보인다”며 “설 연휴까지 흥행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만화 원작자인 이노우에 다케히코가 각본과 연출을 맡았다. 작품 속 주인공이 ‘빨간 머리’ 강백호에서 단신의 ‘넘버 원’ 가드 송태섭으로 바뀌어 원작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복산고와 산왕공고 경기를 다룬다. /연합뉴스



배우 박기웅이 그린 작품 속 ‘48빌런스’ 전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의 특별 전시관에서 배우 박기웅의 전시 ‘48빌런스’(48VILLAINS)가 열리고 있다.

주로 악역을 해온 작가는 수많은 작품 속 악당(빌런)들을 흑백의 모노톤으로 그려낸다. 영화 ‘다크 나이트’의 악당 조커와 ‘시계태엽 오렌지’의 빌런 알렉스 등 48명의 빌런을 그린 작품 48점을 볼 수 있다. 노치옥 작가와 협업한 인터랙션 미디어 아트 작품, 박기웅이 연기와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터뷰 영상 등도 함께 소개된다.

박기웅은 “배우이자 작가로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작품에 담았다”고 말했다. 전시는 4월11일까지. 유료 관람.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

